

기독교 지성운동이 서 있는 곳

윤완철

기독교 학문 연구소 부소장 / 카이스트 교수

20년전 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였습니다. 원래 자동차 운전은 미국에서 배워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대부분 도로 표지판이 미국과 똑같이 생겼었습니다. 아무렴 그래야지, 국제적으로 말과 글 안 통하는 것만도 외로운데, '아이콘마저 서르 사맛디 아니할쎄'가 되어서야 말이 되나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정지 표지판이 생기는 팔각형에 빨간 색인 것까지 똑같은데, 대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세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네거리도 아니고 6차선 대로가 한참 달리는 도중에 뜬금없이 딱 서있는 것이 여러 곳이었습니다. 그런 데서 정지하면 추돌사고는 불 보듯 하니까 고지식하게 정말 서는 차는 한 대도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정지표지판을 서지 않고 통과하면 벌금이 수십 달러인 곳에서 운전하던 저로서는 그 엄숙한 표지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일이 아무래도 마음 편해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그 옆에 경찰이 있기에 내려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 큰 길에 정지표지판이 있는가? 경찰은 그 옆 조그만 골목을 가리키며 그 쪽에서 차가 나올 수 있으니 이 앞은 조심해서 가라는 이야기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골목 쪽을 보고 세우지 않고 대로 쪽을 보고 세웠는가 물으니 대답은 더 많은 차가 보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지 표지판인데 정지란 무엇인가 하고 물으니 그제야 경찰 아저씨도 혼란스러워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표지판은 당황스러웠고 경찰의 인식은 황당하였습니다. 표지와 법규는 있으나 사회적 이해와 규범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 도시엔 50미터가 멀다 하고 신호등 천지입니다. 교통관련 산업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정작 도로의 목적에는 장애가 상당한 형편입니다. 예둘러 말하는 게 그만 길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세상 보기를 하려고 성경적 세계관을 논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 세상 들어가기를 시도하려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에 기독교 지성인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지식인들이 지식 작업을 통해 앞장서면 교회 전체가 방향 감각을 가지고 가야 할 바 행보를 더 밝히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한 근거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동일한 인용문을 가진 채 각자 나름의 생각을 펼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전제는 우리의 이러한 연구와 주장은 적절한 노력을 통해 교회 내에 수용되어, 결국 복음에 입문한 수많은 기독교인에 의해 이해되고 실행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전제는 우리가 좋은 교통표지판과 시설물을 고안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면, 뒤의 전제는 그 표지판들의 사회적 의미가 공유되어 기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위에 이야기한 정지 표지판의 간단한 상황만 생각해 보아도, 참으로 이 두 전제가 사실이 되게 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각 사람의 특수한 직업과 전공의 각 분야에 걸쳐서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

다. 그런데 그 일은 마치 정지 표지를 포함한 교통 시스템에 대한 법규를 만들고 그것을 디자인하고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울 뿐 아니라 영적 문제와 세상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리적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그러한 지침의 사용자인 일반 시민들 입장이 된 신자들도 그 지침을 원리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칙이 없으면 방종과 임의, 혼란, 무지가 되고,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준수하려 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란 뜻을 모르고 기계적으로 지킨다는 폐단을 넘어서서 정작 효과 있는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은 따지고 지킨다는 옛 유대인들의 문제가 재현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강조해 보자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주장되는 각 분야에 대한 지침과 방향이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그것을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러려면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원리 자체가 숙지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왜?'를 모르면 어떤 규칙이나 지침도 제자리에 적용될 수 없고, 공통된 지식이 없으면 '왜?'에 대한 대답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교회가 복음의 원리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서 턱없이 미흡하게 된다면, 기독교 학문 연구의 실제적 적용은 당황스런 교통 표지판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하기보다, 가끔은 뒤를 돌아보며 후방은 과연 안전한가 하고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성 활동의 기반이 건전히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의견으로는 지금은 바로 그 질문을 꼭 해보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은 각자의 삶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믿음은 세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반문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답변들에 깊이와 통일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깊이나 통일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깊이와 통일성이 바른 원천에 뿌리박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에 의한 통일성이나 논리적 탐구에 의해 얻어진 깊이만으로는 진리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래적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에 충실한가 하고 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설령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전문성 있는 인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용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줄 서기와 편 따르기에 불과하거나 또는 율법의 자세한 순위 부여와 유권 해석에 매달려 자기 의를 추구했던 옛 유대인들의 도덕적 무능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주변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많으나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강조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거기에 못 미치고, 개인적인 특수한 사명은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추구되지만 가장 보편적인 계명은 도리어 개인의 문제로 맡겨지는 현상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세상의 통념을 뒤집으신 산상수훈의 큰 뜻과 여러 비유로 반복하여 가리키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근본적인 공통 지식으로 공유되지 않는다면, 그 외 어떤 외곽적 교리에 대한 언어적인 통일이 이

루어지고, 성경의 부분적 해석과 인용에 근거한 기독교적 사고와 행동의 지침이 생성되고, 의무적인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의 거대한 물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제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정말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은 이와 같이 양 날이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즉석에서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긍정적 방향이 우리에게 적용될 소망 역시 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한 이해 위에 든든히 선다면 하나의 참되고 거대한 제자 공동체가 될 것이고, 진리를 이해하며 그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규칙과 지침에 매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충만한 지혜와 자유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1:8~12절 말씀을 소망 안에서 나누며 맺습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쁨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